

제100호(2014. 12. 18.)

#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김동원 박혜진



1. 조사 개요 .....	1
2.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	2
3. 농업정책과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 .....	7
4.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한일 비교 .....	15
5. 요지 및 시사점 .....	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박성재	선임연구위원	02-3299-4238	seongjae@krei.re.kr
내용 문의	김동원	연구위원	02-3299-4227	dongweon@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2-3299-4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http://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 약

-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함**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부담에 찬성하는 비율 증가
  - 도시민 50.9%는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 확대에 찬성했고, 반대 의견은 7.3%에 그침
  -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와 국민경제 기여도 등 전통적인 역할은 긍정평가가 압도적
  - 우리 농업의 발전가능성과 국제경쟁력 인식에서는 농업인보다 도시민의 긍정 응답 비중이 높아 평가가 엇갈렸음
- **국산농산물 구매 충성도가 낮아지는 등 우호적 환경은 약화되고 있음**
  -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응답이 67.2%에 달하고, 가격이 비싸도 국산농산물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은 29.5%로 30%대 이하로 떨어지는 등 과거에 비해 충성도가 낮아지고 있음
  - 농촌지역 복지예산 확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4.2%로 반대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나 찬성률은 감소하고 있음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함**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와 우리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함
  -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품목으로는 특용작물-과일-채소 순으로 꼽았음
  -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은 감소하고 있으며, 필요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소득원'을 꼽았음
  - 국산 농식품의 안전성과 농촌관광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과 소득안정대책에 관심이 많으며, 농업인의 생활 만족도는 상승하고 있으나 직업만족도는 하락함**
  - 농업인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농산물 가격'이었으며 고용노동력이 필요하다는 농가는 68.7%, 이 중 70.6%는 인력수급이 어렵다고 응답
  - 경영 위협요소로는 농산물 시장개방, 생산비 증가, 일손부족을 비중 있게 꼽았음
  - 농촌생활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10년 새 4배 상승한 43.8%, 불만족은 18.8%에 그쳤음
  - 직업만족도에 대해 19.9%만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67.8%는 후계인력이 없다고 응답했고, 45.4%는 자신이 75세 이상까지 영농활동을 할 것으로 전망
- **일본이 한국보다 자국의 농업농촌 가치와 농산물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함**
  - 농촌의 자원과 가치유지 전망, 수입산과 비교한 자국농산물의 우수성 평가에서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긍정적이고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래 식량수급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



## 1. 조사 개요

### □ 조사 배경과 설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의식 변화와 정책현안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여 연구에 활용할 목적으로 매년 말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음<sup>1)</sup>
- 이번 조사는 농업인 조사대상을 기존 1,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나아가 일본국민의 의식과 비교할 수 있도록 문항을 추가 설계함

### □ 조사 방법 및 내용

- 조사는 2014년 10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1,209명 등 총 2,709명에 대해 이루어짐
  - 도시민(1,500명): 전국(제주 포함) 도시지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지역상연령별 인구비례 할당 표본추출을 하여 1:1 방문 면접 조사
  - 농업인(1,209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 3,000명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해 1,209건 회수
- 조사 주요 내용은 농업 및 농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식변화, 농업정책과 정책현안에 대한 인식, 농업개방과 대책에 대한 견해, 식품안전 인식과 농촌에 대한 관광수요 등이며 이 자료에서는 조사 내용 가운데 주요 결과만을 정리함

“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정책현안 견해  
파악

”

1) 이 조사는 1978년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다가 2006년부터 도시민을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식조사로 확대함. 연구 활용이라는 조사목적에 부합하고 과거 조사연계 등을 고려하여 도시민은 일반여론조사로, 농업인은 고정표본을 이용한 조사로 실시

“  
공익적 가치와  
세금부담  
긍정인식 확산  
”

## 2.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 2.1.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긍정인식 확산

#### □ 공익적 가치 긍정평가 5년 전보다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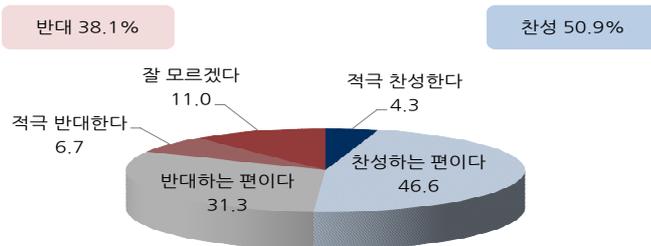
- 도시민들은 농업·농촌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66.2%
  - 가치를 인정한 응답 비중은 2009년 본 조사(58.6%)보다 7.6%p 상승

#### □ 도시민 과반수는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부담 찬성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세금 추가부담에는 ‘찬성한다’는 비율이 50.9%로 나타났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38.1%임
  - 찬성 의견은 2009년 본 조사결과(50.3%)와 비교하면 0.6%p 소폭 상승함

그림 1.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유지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

(단위 : %)



### 2.2. 농산물 시장개방 지나치게 빠르다고 인식

#### □ ‘농산물 시장 더 개방되면 농촌경제 어려워질 것’ 87.4%

-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도시민의 대다수가 ‘이미 지나치게 개방’ (75.7%)되었고, ‘더 개방되면 농촌경제가 어려워질 것’ (87.4%)이며, ‘국가는 농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93.5%)고 인식
  - ‘개방될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할 것’ (67.2%)이라는 인식도 70%에 육박함

표 1.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의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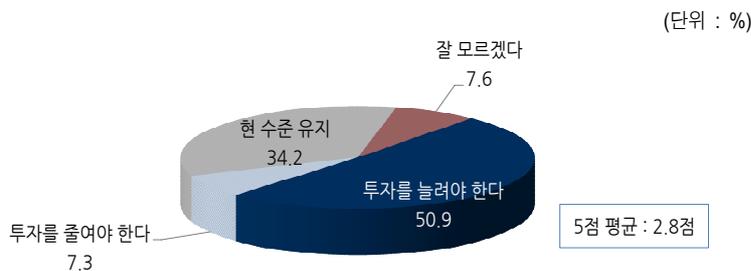
구 분	보기 항목	모름/무응답		계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농산물시장은 이미 지나치게 개방되었다	(사례수)			
농산물시장이 더 개방되면 농가와 농촌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1,500)	75.7	24.2	0.1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될수록 소비자는 더 유리해진다	(1,500)	87.4	12.5	0.1
국가는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최대한 농업을 보호하고 지킬 책임이 있다	(1,500)	67.2	32.7	0.1
		93.5	6.3	0.2

### 2.3.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확대 지지도 높아

#### □ 농업·농촌 투자확대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7배 많아

- 도시민 중 50.9%는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을 고려해 농업·농촌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고,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침
  -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제주/강원(67.3%)과 광주/전라(62.8%)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음

그림 2. 농업·농촌의 투자확대에 대한 의견



#### □ 농촌복지예산 확대 찬성이 압도적이나 찬성비율은 감소

- 농촌복지 관련 예산 확대에 ‘찬성한다’는 도시민은 54.2%로 ‘반대한다’는 응답 7.1%보다 7배 높게 나타남
  - 찬성비율: 2006년 75.4%, 2009년 63.4%

“

농업·농촌 투자  
확대 찬성의견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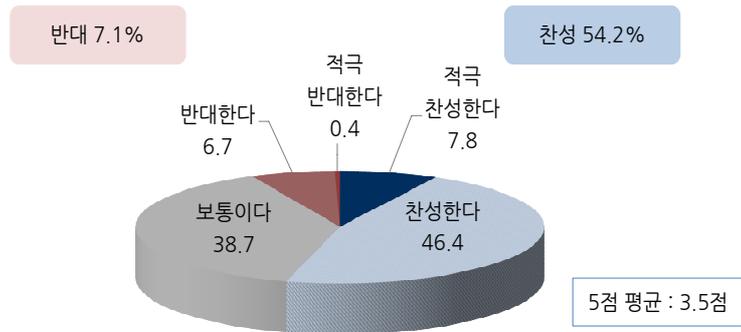
”

“  
농촌 복지 예산  
본인 부담에는  
부정적

”

그림 3. 농촌복지예산 확대에 관한 인식

(단위 : %)



□ 농촌복지예산 본인 추가부담 의향은 10명 중 3명 그쳐

- 농촌복지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해 본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의향에는 ‘찬성한다’ 는 응답이 32.2%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22.0%나 줄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

2.4. 농업·농촌에 대한 우호적 환경 약화

□ 농업·농촌 관련 주요 인식변화 긍정인식 감소 뚜렷

- 농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발전가능성 등 12개 질문 항목에서 긍정적인 답변 항목은 농업인 8개, 도시민 10개로 조사됨
  - 농업의 전통적인 가치나 지원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농업의 발전가능성과 전망은 도시민이 상대적으로 긍정비율이 높음
  - 농업인과 도시민 공통적으로 긍정보다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자녀의 농업종사’ 와 ‘우리나라 농업 전망’ 임
  - ‘발전가능성’ 과 ‘국제경쟁력’ 항목은 농업인이 부정적인 반면 도시민은 긍정적인 답변이 많아 평가가 엇갈림
  - ‘초중고 교과과정에 농촌체험 의무화’ 는 농업인 73.1%, 도시민 60.1%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10% 미만으로 찬성의견이 뚜렷함
  - ‘농산물 가격은 공산품에 비해 싸다’ 는 의견과 ‘우리 농산물이 외국산 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 는 의견에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고 반대는 15% 미만임

- 특히,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투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농업인 58.9%, 도시민 48.2%가 반대한 반면 찬성은 각 16.1%, 16.5%로 낮음
- ‘농사가 잘못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는 항목과 ‘농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바가 크다’는 항목에 찬성하는 비율은 농업인과 도시민 각 70.2%, 59.3%가 찬성 의견을 보인 반면 반대는 농업인 5%대, 도시민 10%대 미만에 그침
- 한편, 이 같은 결과를 2007년과 2012년 조사치와 비교하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긍정답변 비율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농업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 변화

(단위 : %)

문항	2014년		2012년		2007년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농업인	도시민
① 초·중·고 교과과정에 농촌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	73.1	60.1	80.7	66.7	81.9	73.9
② 농사가 잘못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70.2	59.3	78.3	68.5	90.0	79.1
③ 자녀가 원한다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	29.8	27.9	35.3	28.0	39.6	45.7
④ 농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바가 크다	73.8	58.1	74.4	62.7	81.8	79.1
⑤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16.0	38.4	23.7	41.3	19.6	35.8
⑥ 우리나라 농업은 국제경쟁력이 있다	14.9	34.1	27.8	39.3	26.6	35.2
⑦ 농산물 가격은 공산품 물가에 비해 싸다	68.5	46.0	72.0	46.7	85.7	63.0
⑧ 우리 농산물은 외국농산물에 비해 안전하다	69.2	68.7	79.0	76.0	85.3	86.5
⑨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투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	16.1	16.5	14.4	17.5	19.1	16.0
⑩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걷을 수도 있다	47.5	32.5	48.3	38.7	60.2	49.5
⑪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국가가 농가소득을 보상해 줘야 한다	83.2	52.4	87.7	63.2	94.5	77.7
⑫ 우리나라 농업전망은 밝다	12.0	26.9	16.0	30.1	-	-

“

농업·농촌 관련  
주요 의식 긍정  
감소 추세

”

□ 국산농산물 구매 충성도 지속 하락

-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시 농산물 구입 계획에 대해서 도시민은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안전성 포함) 우수성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 는 의견이 35.4%로 가장 많음
  - 다음으로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면 수입농산물을 구입할 것이다’ (35.1%) 순으로 조사됨
  - ‘수입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것’ 이라는 응답은 29.5%로 나타나 2009년 37.0%, 2012년 34.1%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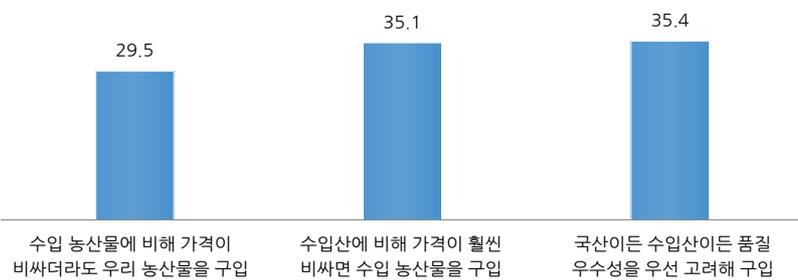
“

수입산에 비해 가격 비싸도 우리농산물 구매하겠다는 충성도 낮아져

”

그림 4.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산물 구입 의향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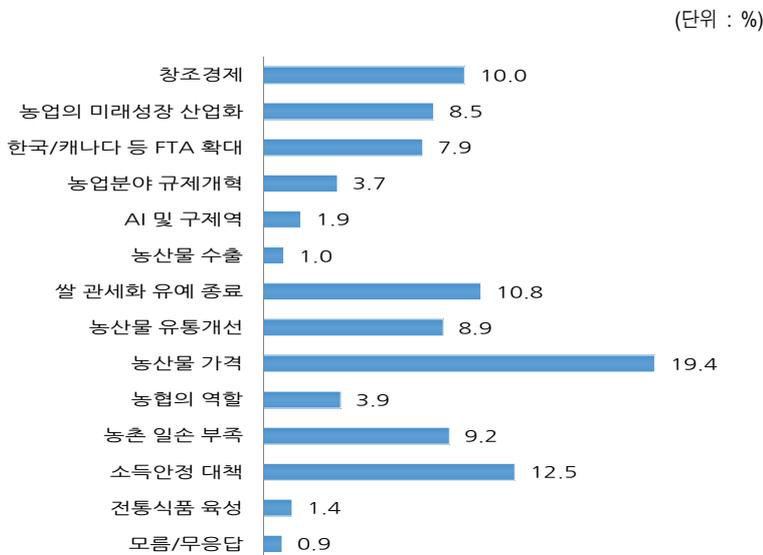
### 3. 농업정책과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

#### 3.1. 소득안정과 귀농귀촌정책 관심 많아

##### □ 농업인, 가장 관심 있는 농식품분야 이슈로 ‘가격’ 꼽아

- 농업인들은 가장 관심 있는 농식품분야 이슈로 ‘농산물 가격’ (19.4%)을 꼽았음
  - 다음으로 ‘소득안정 대책’ (12.5%), ‘쌀 관세화 유예 종료’ (10.8%), ‘창조경제’ (10.0%), ‘농촌 일손 부족’ (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 가장 관심 있는 농식품분야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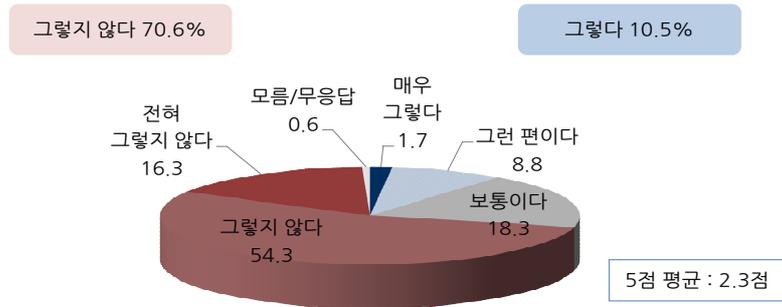
“  
농업인  
‘농산물 가격’  
‘소득안정 대책’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이슈로 꼽아

##### □ ‘농사에 고용 노동력 필요’ 68.7%, ‘일손구하기 어렵다’ 70.6%

- 농사에 자가 노동력 외에 고용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농업인은 68.7%로 ‘필요하지 않다’ 29.9%에 비해 38.8%p 많았음
  - 고용 노동력의 필요성은 과수(78.8%), 시설원예(77.6%), 특작(75.4%)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농사에 자가 노동력 외에 고용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자(n=830) 중에서 고용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지고 있다는 응답이 10.5%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0.6%로 압도적으로 많아 고용 노동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6. 고용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 여부

(단위 : %)



“

고용 노동력 수급  
원활하지 않다는  
응답 70% 넘어

”

□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 10명 중 4명 정도로 감소 추세

-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도시민은 39.0%이며,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54.5%로 15.5%p 많았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영업자(49.3%), 농촌생활 유경험자(49.3%)가 귀농·귀촌 의향 비율이 높음
  - 귀농·귀촌 의향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 71.3%, 2009년 53.0%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30%대로 떨어져 감소 추세에 있음

표 3. 은퇴 후 귀농·귀촌 여부

(단위 : %)

구분	항목	(사례수)	보기 항목					잘 모르겠다	
			① 매우 많다	② 조금 있다	①+② 많다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④+⑤ 없다
전체		1,500	8.7	30.3	39.0	28.7	25.8	54.5	6.5
연령별	19 ~ 29세	284	4.9	20.4	25.4	29.6	32.4	62.0	12.7
	30대	296	7.1	27.0	34.1	33.8	26.0	59.8	6.1
	40대	330	9.1	33.6	42.7	27.3	24.8	52.1	5.2
	50대	293	13.3	35.2	48.5	29.0	19.5	48.5	3.1
	60세 이상	297	9.1	34.3	43.4	23.9	26.6	50.5	6.1
직업별	농/임/어업	4	75.0	0.0	75.0	0.0	25.0	25.0	0.0
	화이트칼라	315	9.5	27.0	36.5	32.1	25.1	57.1	6.3
	블루칼라	391	7.7	31.7	39.4	28.6	25.1	53.7	6.9
	자영업	290	12.1	37.2	49.3	22.8	23.1	45.9	4.8
	주부	377	6.9	30.8	37.7	31.0	26.3	57.3	5.0
	학생	123	5.7	17.1	22.8	27.6	35.0	62.6	14.6
농촌경험	있다	720	12.9	36.4	49.3	26.4	18.3	44.7	6.0
	없다	780	4.9	24.6	29.5	30.8	32.7	63.5	7.1

□ 귀농·귀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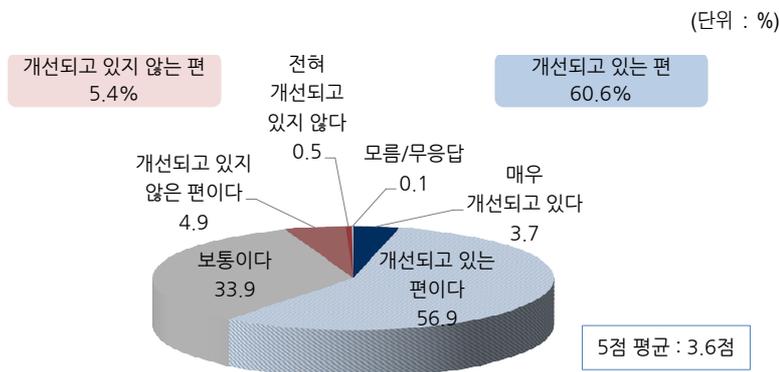
- 은퇴 후 귀농·귀촌하고 싶다는 도시민(n=585)은 가장 큰 이유로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50.1%), 다음으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21.4%), ‘농업을 경영해 안전식품을 자급하기 위해’(9.7%), ‘농촌에 거주하면서 생계의 한 수단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8.9%) 순으로 응답함
  - 귀농귀촌을 한다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원’을 29.1%로 가장 많이 꼽았고, ‘마음의 준비와 결심’(14.1%), ‘이주에 필요한 자금’(1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귀농·귀촌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30.6%가 ‘정부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귀농관련기관의 교육, 정보제공’(21.5%),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노력과 투자’(18.9%) 순으로 응답함

□ 최근 5년간 농식품 안전성 개선되고 있다고 인식

- 최근 5년간 농식품 안전성 개선 정도에 대해서는 도시민 60.6%가 ‘개선되고 있는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개선되고 있지 않는 편’은 5.4%에 불과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도시민을 대상으로 생산/유통 단계에서 우리 농산물과 수입산 농산물의 안전성 인식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 모두 ‘우리농산물이 수입농산물보다 더 안전하다’(각각 75.7%, 65.7%)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귀농·귀촌 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소득원’  
‘마음의 준비’  
꼽아  
”

그림 7. 최근 5년간 농식품 안전성 개선 정도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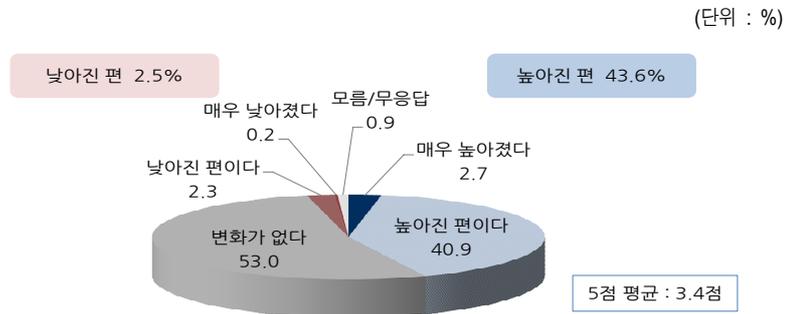
올해 농촌관광 경험  
5명 중 1명,  
평균 방문횟수는 5회

”

□ 도시민, ‘농촌관광 만족도 높아졌다’ 긍정 평가

- 올해 관광을 목적으로 농촌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도시민은 19.9%로 조사됨
  - 방문 경험자는 평균 방문 횟수가 5.0회, 방문 일수는 5일로 조사됨
  - 2~3년 전에 비해 농촌 관광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는 43.6%로 ‘낮아졌다’는 평가 2.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 농촌지역 방문 시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는 ‘편안한 휴식’(30.9%)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전통시장 방문’(16.3%), ‘농산물 직구입’(1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8. 2~3년 전 대비 농촌 관광의 전반적인 만족도



□ 농업인 4명 중 1명은 ‘농촌지역 시설과 환경 안전하지 않다’

- 농업인 25.1%는 농촌지역의 각종 시설과 환경의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안전하다’는 응답은 35.6%로 조사되었으며, 지대별로는 산간지대 거주 농업인들이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음

표 4. 농촌지역의 각종 시설과 환경 안전성에 대한 인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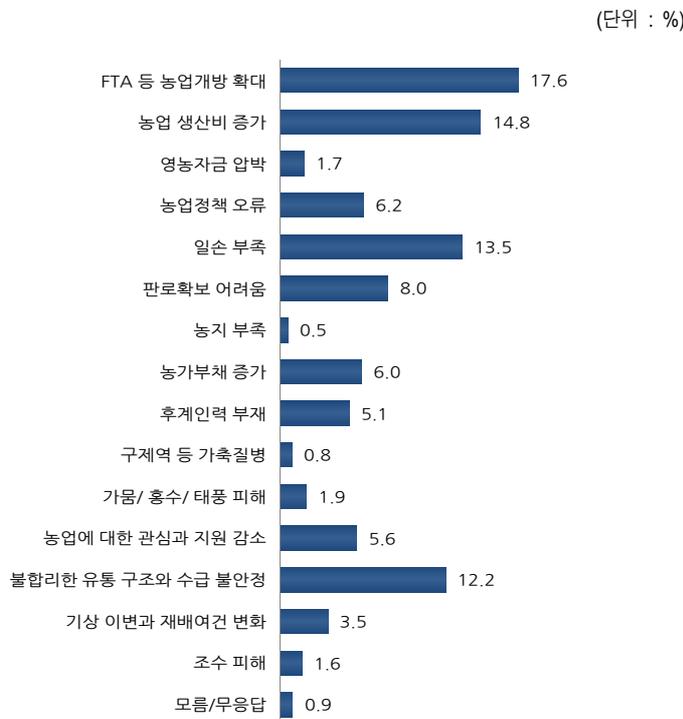
구 분		보기 항목	비율 (%)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안전한 편이다	①+② 안전	보통 이다	④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안전하지 않다	④+⑤ 불안전	모름 무응답
전체		1,209	3.4	32.2	35.6	37.6	21.1	4.0	25.1	1.8
지 대 별	도시 근교	245	5.3	35.5	40.8	35.1	17.6	4.1	21.6	2.4
	평야 지대	269	3.3	37.2	40.5	37.9	19.0	1.9	20.8	0.7
	산간 지대	609	2.6	29.1	31.7	38.6	23.0	4.8	27.8	2.0
	무 응 답	86	3.5	29.1	32.6	36.0	24.4	4.7	29.1	2.3

### 3.2.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지속가능성 긍정 인식

#### □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소로 ‘개방 확대’ 꼽아

- 농업인들은 농가경영의 위협요인으로 ‘FTA 등 개방 확대’를 가장 많이(17.6%) 꼽았으며, 이어서 ‘농업 생산비 증가’(14.8%), ‘일손부족’(13.5%),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수급불안정’(1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1년까지는 생산비 증가를 가장 큰 경영위협 요인으로 꼽았으나 FTA가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농업개방을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인력부족도 지속적으로 주요 경영위협 요인으로 꼽고 있음

그림 9. 농업경영 위협요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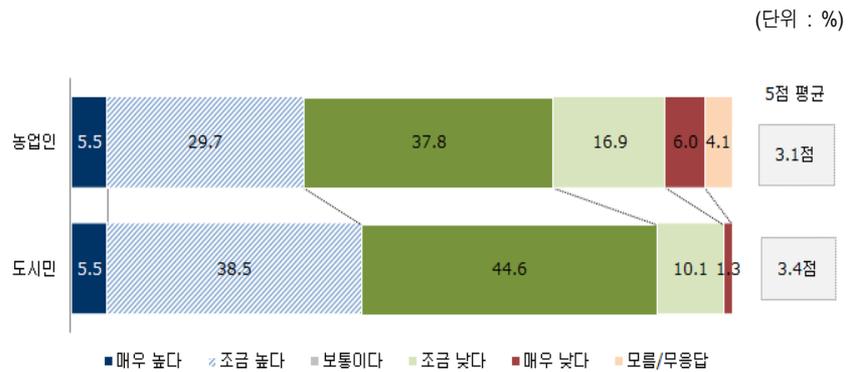
“  
농업인들이 느끼는  
농업경영 위협요인은  
‘생산비’에서  
최근에는  
‘수입 개방’으로  
인식 변화  
”

####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가능성 긍정 평가

- 한국 농업이 기술과 아이디어를 융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장을 창출하는 미래성장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농업인 35.2%가, 도시민 44.0%가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
  - 가능성이 낮다(매우 포함)는 응답은 농업인은 22.8%, 도시민은 11.4% 였음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업인보다 도시민이  
가능성 더 크게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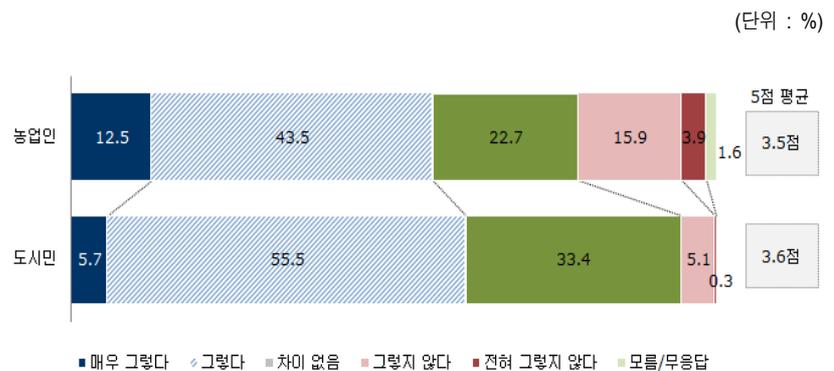
그림 10.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능성 인식



□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 10년 전보다 밝다고 인식

- 10년 전과 비교한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농업인 56.0%, 도시민 61.2%가 긍정적으로 전망
  - 지속가능한 농법 채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농업인 84.4%, 도시민 78.0%가 ‘중요하다’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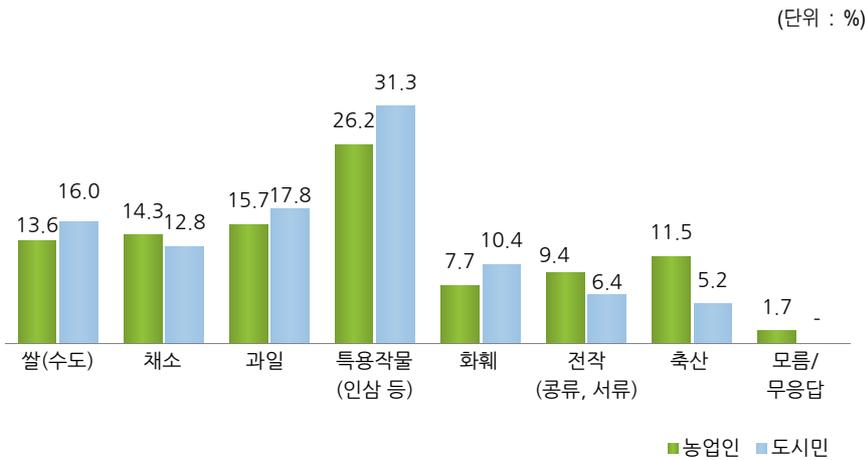
그림 11. 10년 전에 비해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



□ 성장 잠재력 가장 높은 품목 ‘특용작물’, ‘과일’ 꼽아

- 성장 잠재력이 높은 품목으로,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특용작물’ (각각 26.2%, 31.3%)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과일’ (각각 15.7%, 17.8%)을 꼽았음
  - 다음으로는 농업인은 채소(14.3%)를, 도시민은 쌀(16.0%)을 꼽았음

그림 12.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품목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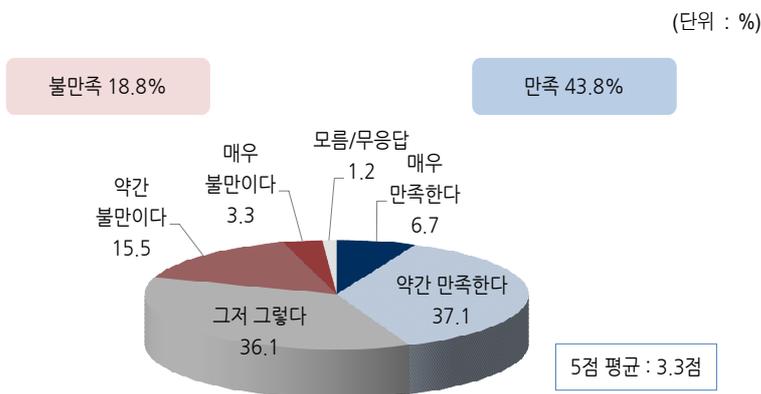
### 3.3. 농업인, ‘농촌생활’은 좋는데 ‘농업’은 불만족

#### □ 농촌생활 만족도 10년 새 4배 상승

- 농업인은 현재 농촌 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43.8%로 ‘불만이다’는 응답 18.8%에 비해 25.0%p 높았음
  - 영농경력이 20년 미만이고, 연평균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계층에서 농촌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만족한다는 응답을 연도별로 보면, 2004년 10.9%, 2009년 29.1%로 지속적으로 상승함

“  
농촌생활 만족도  
2004년 10.9%에서  
2014년 43.8%로  
상승

그림 13. 농촌 생활 만족도 인식



“  
 농업인 직업만족도  
 53.2점으로 한국  
 평균 64.1점보다  
 10.9점 낮아

□ 농업인의 직업만족도는 한국인 평균에 비해 11점 낮아

- 농업인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높음)’ 는 응답이 19.9%로 ‘불만이다(낮음)’ 는 응답 32.9%에 비해 13.0%p 낮았음
  -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 는 응답이 21.6%로 ‘불만이다’ 29.6%보다 8.0%p 낮음
  - 현재 얻고 있는 수입에 대해 ‘불만이다’ 는 응답이 55.2%로 ‘만족한다’ 8.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 이 같은 조사결과를 2013년도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이 실시한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100점 만점에 농업인 53.2점, 한국인 평균 64.1점으로 10.9점의 차이를 보임

표 5. 농업인의 직업만족도

구분	KREI		KRIVET	
	2014년 조사결과		한국의 직업지표연구(2013년)	
	5점 평균	100점	5점 평균	100점
① 전반적 만족 정도	2.81	56.2	3.32	66.4
②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 정도	2.87	57.4	3.30	66.0
③ 현재 얻고 있는 수입에 대한 만족 정도	2.31	46.2	3.00	60.0
평균	2.66	53.27	3.21	64.13

□ 농업인 대부분 ‘70세 이상까지 영농활동할 터’

- 농업인은 향후 영농활동의 예상 기간으로 ‘75세 이상’ (45.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서 ‘70세 이상 75세 미만’ (32.3%), ‘65세 이상 70세 미만’ (11.8%) 순으로 나타남
  - 영농 자녀 상속여부에 대해서는 상속받을 후계 인력이 ‘없다’ 는 응답이 67.8%로 ‘있다’ (30.1%)는 응답에 비해 2배 이상 많음
  - 상속받을 후계 인력으로는 직계비속이 61.3%, 타인은 9.3%로 조사됨

## 4.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한일 비교

### □ 농촌 자원과 가치 유지 한국보다 일본이 더 긍정적으로 전망

- 농촌경관, 농촌의 다양한 동식물 등 5개 항목의 농촌 자원과 가치가 미래에도 유지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일본 국민의 90% 정도가 긍정적으로 전망하였으나, 한국은 농촌경관과 농업생산자원에서만 70%대의 긍정을 보여 양국의 인식차가 크게 나고 있음을 보여줌
  - 한국은 이러한 가치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농촌경관-농업생산자원-다양한 동식물-전통문화-지역 공동활동’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음
  - 일본의 경우 ‘전통문화-농촌경관-농업생산자원-지역 공동활동-다양한 동식물’ 순으로 응답하여 한국과 큰 차이를 보임
  - 특히, 지역 공동활동과 전통문화 등 농촌생활환경 유지 인식에서 한국과 큰 격차를 보임

표 6. 농촌의 자원과 가치 미래 유지 정도 인식

(단위 : %)

문항	① 한국	② 일본	① - ②
	2014년	2010년	
① 농촌경관	72.6	90.5	-17.9
② 농촌의 다양한 동식물	55.6	87.3	-31.7
③ 마을잔치 등 지역의 공동 활동	48.2	89.7	-41.5
④ 식생활 문화 공예품·마을축제 등 전통 문화	55.2	91.0	-35.8
⑤ 농지·농업용수·농로 등의 농업 생산 자원	70.6	90.0	-19.4

※ 비교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식품 및 농업농촌에 관한 의식의향 조사 결과 (2010.4)/ 소비자 1,500명, 농업인 2,500명  
한국 KREI,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소비자 1,500명, 농업인 1,209명(이하 동일)

### □ 장래 식량수급 일본이 한국보다 불안감 더 크게 느껴

- 한국은 장래 식량 수급에 대해 71.4%가 ‘불안하다’ 고 응답한 반면 ‘불안하지 않다’ 는 응답은 24.4%로 조사됨
  - 농업인의 79.8%, 도시민의 62.9%가 ‘불안하다’ 고 응답함
  - 일본의 경우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79.8%로 한국보다 8.4%p 높게 나타남

“

일본이 한국에 비해  
농촌의 전통과  
가치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  
인식 비율이 높음

”

표 7. 장래 식량수급 전망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① 한국	② 일본	① - ②
	2014년	2014년	2014년
매우 불안하다	18.6	28.3	-9.7
어느 정도 불안하다	52.5	51.5	1.0
불안함(소계)	71.4	79.8	-8.4
불안하지 않다	20.7	13.9	6.8
전혀 불안하지 않다	3.7	2.7	1.0
불안하지 않음(소계)	24.4	16.6	7.8
모르겠다	4.2	3.6	0.6
합계	100.0	100.0	

※ 비교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식료·농업농촌 및 수산업수산물에 관한 의사의향 조사'(2014.5./ 농업인 1,269명, 어업인 349명, 유통가공업체 705명, 소비자 987명)

“

일본도 자국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은  
안전성, 신선도, 맛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

”

□ 일본이 한국보다 자국농산물에 대한 평가 뚜렷이 높아

- 한국은 수입산과 비교한 국산농산물 7개 평가 항목에서 안전성, 신선도, 맛 항목에서는 90% 이상 우수성을 인정했지만, 가격경쟁력, 브랜드화, 원산지 표시 등은 우수하다는 평가가 70%를 넘지 못함
  - 특히, 농업인은 가격경쟁력 우수성을 가장 낮게 평가함(31.1%)
  - 일본의 경우 7개 평가 항목에서 6개 항목이 94%를 넘어 한국과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일본도 가장 우수성이 낮다고 평가한 항목은 가격경쟁력(54.4%)으로 꼽았음
  - 일본은 전 항목에서 한국보다 자국농산물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했는데, 항목의 격차는 브랜드화 정도(31.5%p), 원산지표시(21.5%p), 구매 용이성(16.4%p) 순으로 크게 나타남
  - 가장 격차가 작은 항목은 원산지와 신선도로 각 4.1%p의 차이를 보임

표 8. 수입농산물과 비교한 국산농산물 평가

(단위 : %)

문항	① 한국	② 일본	① - ②
	2014년	2010년	
①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94.6	98.7	-4.1
② 국산 농산물의 신선도	94.3	98.4	-4.1
③ 국산 농산물의 맛	90.5	98.3	-7.8
④ 국산 농산물의 브랜드화 정도	64.3	95.8	-31.5
⑤ 국산 농산물의 구매 용이성	79.6	96.0	-16.4
⑥ 국산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68.9	94.0	-25.1
⑦ 국산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48.0	54.4	-6.4

※ 비교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식품 및 농업농촌에 관한 의사의향 조사 결과'(2010.4./ 소비자 1,500명, 농업인 2,500명)

## 5. 요지 및 시사점

-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국민이 많지만 농업에 대한 우호적 환경은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강화 필요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많다는 도시민은 66.2%로 과거보다 증가
  - 농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국산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 비중과 국산 농산물의 구입충성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음
  -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비중이 반대하는 비중을 압도하고 있으나 복지예산의 확대 찬성비율은 감소 추세임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긍정적으로 전망해 정책성과 거두기 위한 투자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10년 전과 비교해 우리농업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평가
  - 성장 잠재력이 높은 품목으로는 ‘특용작물’과 ‘과일’을 꼽았음
- 농업인의 직업만족도 하락해 농산물 시장개방 대책, 소득안정, 농촌일손부족 해소 등 정책적 관심 필요
  - 농사에 만족하는 농업인은 19.9%에 그치고 만족도도 하락함
  -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과 소득안정대책에 관심이 높고, 경영 위협요인으로 ‘개방확대’와 ‘생산비 증가’를 꼽았음
  - 고용노동력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가에서 일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함
  - 농업인 25.1%는 농촌지역 시설과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해 농촌지역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도시민, 귀농·귀촌 의향 감소해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
  - 도시민 중 귀농·귀촌 의향을 갖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귀농·귀촌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소득원’을 들고 있으며, 정책의 개선점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해 귀농·귀촌을 위한 다양한 유인책이 제시되길 바라고 있음
  - 최근 5년간 국내산 식품 안전성은 개선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올해 농촌관광을 경험한 도시민 43.6%는 2~3년 전보다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해 농촌관광 여건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

“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와 소득안정, 귀농·귀촌 정책 관심 필요

”



2014년

- 제100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99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 제98호 발농업의 쟁점과 발전방향(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 제98호 한·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 제97호 발농업의 쟁점과 발전방향(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 제96호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어명근, 이병훈)
- 제95호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박성재)
- 제94호 지역 간 연계협력 현황을 통해서 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과제(송미령, 권인혜)
- 제93호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 제92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욱, 박동규)
-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 제90호 농어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박준기, 김미복)
- 제89호 한·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 제88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 정책 과제(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 제86호 한·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 제85호 한·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제84호 AI 발생 및 대응 상황과 방역정책 추진 방향(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2013년

- 제82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정정길)
- 제80호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 현황과 주요 과제(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 제79호 산지축산의 유럽 사례 및 시사점(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 제78호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 제77호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 제76호 해외조림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 제75호 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박동규, 승준호)
- 제74호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석현덕, 박소희)
- 제73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송주호)
- 제72호 2014년 이후 한우육 사육과 가격 전망(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제71호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석현덕, 안선진)
- 제70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3년 추석 가격 전망(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김태근, 허주녕, 양찬영)
- 제68호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정호근, 석현덕)
- 제67호 2013년 7월 북한의 수해 상황과 경제적 피해(권태진, 임수경)
-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박시현)
- 제65호 유기농업의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로드맵(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64호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군별 농업경쟁력 평가(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63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석현덕, 안선진)
- 제62호 한·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박준기)
- 제59호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성명환, 윤재웅)
-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정원호, 최경환)
- 제56호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송미령)
- 제55호 국내의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54호 산불 관리의 현황과 개선 과제(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 제53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 제52호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김성우, 노호영)
- 제51호 한·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정민국, 문한필)



-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박기환)
- 제49호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김연중, 한혜성)
- 제48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지인배, 허덕, 송우진, 우병준)
- 제47호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김용렬, 박시현)
- 제46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박현태, 박기환)
- 제45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정민국)
- 제44호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강창용)
-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제주 공간의 모습(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강창용)
-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이계임, 이동소)
-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박준기)

2012년

- 제38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정원호)
-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황윤재)
-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희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송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욱, 송준호)
-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회)
-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중현)
-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 제16호 견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중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의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회)
-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송준호)
-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

**KREI 농정포커스 제100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4. 12. 18.  
발 행 2014. 12. 18.  
발 행 인 최세균  
편집위원 박성재, 김병률, 박준기, 성주인, 한석호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02-2269-5523~4 [dec5523@hanmail.net](mailto:dec5523@hanmail.net)

---

ISBN: 978-89-6013-655-7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